

상황버섯의 균사체로부터 항종양성 다당류의 회수와 정제

최근호*

한밭대학교

(khchoi@hanbat.ac.kr*)

상황버섯(*Phellinus linteus*) 균사체로부터 얻어지는 다당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투석시간(8, 16, 24, 48 hr)을 포함하는 추출조건과 정제조건이 다당류의 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. 추출온도(50, 65, 80, 95°C)와 건조 균사체의 무게에 대한 물의 부피의 비(10, 15, 20, 25 mL/g), 추출시간(2, 4, 6, 8 hr), 침전용매의 최종 농도(70, 75, 80, 85 %) 그리고 묵침시간(1, 4, 8, 16 hr)이 증가할수록 다당류의 양은 증가하였다. 투석시간이 24 hr까지 증가할수록 다당류의 양은 감소하였으나 그 이상의 투석시간은 다당류의 양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했다. 침전용매로는 3 가지 용매(에탄올, 메탄올, 아세톤)를 사용하였는데, 다당류의 양은 아세톤, 에탄올, 메탄올의 순서로 감소하였다. 최적 추출조건은 추출온도가 95°C이고, 건조 균사체의 무게에 대한 물의 부피의 비가 25 mL/g이며, 추출시간은 8 hr인 조건이었다.